

Issue Comment

- ✓ UAE 매립공사, 7 월중 시공 입찰 예정
- ✓ 준설, 매립 특화된 현대건설의 낙찰 소식 기대
- ✓ 한국 주력 시장인 UAE 활발한 발주 소식 예상

[건설] UAE 오프쇼어 필드 사위가스 매립공사 발주

- UAE 아부다비 국영 석유회사 (ADNOC)이 7 월 12 일 하일 및 가샤 (Hail and Ghasha) 사위가스 개발을 위한 매립공사 입찰 예정인 것으로 밝혀짐. FEED 설계는 연초부터 벡텔 (Bechtel)이 수행했으며, 전체 사업규모는 150 억달러 수준임
- 입찰사전심사 (PQ, Prequalification)에 통과한 업체는 한국의 현대건설, 그리스 Archirodon, 벨기에 Dredging International, 네덜란드 Royal Boskalis Westminster, 현지 업체인 National Marine Dredging Company 등임
- 준설, 매립에 특화된 현대건설의 낙찰 기대감 유호
- 2017 년간 GCC 에서 발주된 1,080 억달러의 프로젝트 중 UAE 발주가 435 억달러 규모로 40% 차지, 금년도 역시 석유가스, 화학, 석탄화력 발주 400 억달러 포함 두바이 2020 엑스포를 앞두고 활발한 인프라 발주 소식 역시 기대됨. ADNOC (구 Takreer) New Refinery 150 억달러 역시도 FEED 입찰 추진을 위해 업계 의향이 타진중. 한국 건설사의 주요 수주 텃밭인 UAE 에서 하반기 활발한 발주 소식 기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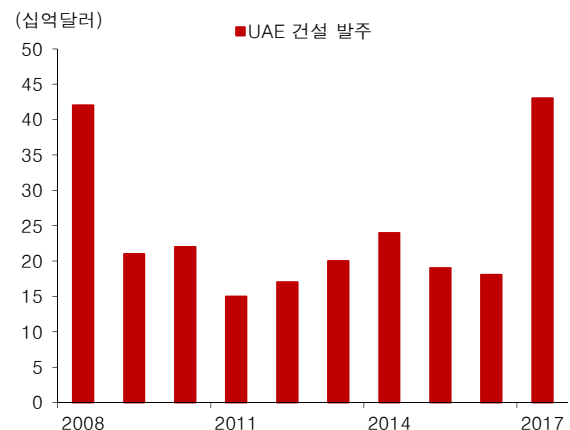
7 월 중 UAE 오프쇼어 사위가스 매립 시공부문 발주 소식

지난해부터 이어온 활발한 UAE 건설 발주

Adnoc tenders offshore islands construction

Abu Dhabi National Oil Company (Adnoc) has invited companies to bid by 12 July for the contract to reclaim a series of offshore islands for the development of its Hail and Ghasha sour gas fields. (중략)

US-based Bechtel was awarded the front-end engineering and design (feed) contract for the Hail and Ghasha fields earlier this year. The Hail and Ghasha project is one of Adnoc's largest sour gas fields developments and is forecast to produce about 1 billion cubic feet of sour gas a day.



자료: MEED, SK 증권

자료: MEED, SK 증권

- 작성자는 본 조사분석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이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신의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 본 보고서에 언급된 종목의 경우 당사 조사분석담당자는 본인의 담당종목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 보고서는 기관투자자 또는 제 3 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 투자판단 3 단계 (6 개월 기준) 15%이상 → 매수 / -15%~15% → 중립 / -15%미만 → 매도